

문헌정보학과의 기록관리 교과목과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 출판 동향 분석

An Analysis of Records Management Courses offered at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Publication Trend of Records Management Articles b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ors

한 미 경 (Mi-kyung Han)*

노 영 희 (Younghee Noh)**

목 차

- | | |
|------------------------------|--------------------------------------|
| 1. 서론 | 4.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
출판동향 변화의 분석 |
| 2. 선행연구 | 5. 논의 |
| 3.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 교과목
변화의 분석 | 6. 결론 및 제언 |

〈초록〉

본 연구는 기록관리 전문가를 교육 및 양성하는 주요 학문영역의 하나로서 문헌정보학의 교육과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35개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과 기록관리학 분야 교과목의 변화를 검토하고 국내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7개 학술지에 실린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학술논문들을 대상으로 출판 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의 한 영역으로서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은 새로운 학문분야, 교과목 개설의 증가, 학회의 창설과 학회지의 창간,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학문의 학제적 성격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록관리학 교과목의 개설과 융합적 연구, 그리고 타 학문 영역의 기록관리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록관리학, 교과목, 교과과정, 연구동향, 문헌정보학, 출판동향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the status analysis and formulation of directions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part of major study area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archivis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curricula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of 35 four year universities all over Korea and the changes in the curricular of records management area and reviewed and analyzed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ors's articles of records management area which were published in 7 journals for the purpose of their publication trend. It was found out that the study trend of the record management area, as par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as influenced by the new study fields, the increase in subject opening, founding of academic societies and publication of new journal, enactment and amendment of disciplinary character of studies, etc. Based on this, the necessity for opening of new records management cours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vestigation of records management education and researches of other study fields were proposed.

Keywords: archive management, subject, course, study trend,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publication trend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조교수(bib4u@kgu.ac.kr)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5년 10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5년 10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28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25-149,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4.12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국내 기록관리학은 문헌정보학과 역사학 두 학문분야의 새로운 영역으로 교육 및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 목포대학교 대학원에 사학과 주관의 기록관리학 전공이 설치되고, 이후 문헌정보학과와의 교과과정에도 기록관리학 분야 교과목을 설치하는 대학이 대폭 증가하였다. 일부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기록보존에 대한 연구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기록관리학으로 확대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1957년 새로운 학문분야로 대학에 설치되고 연구되어 온 문헌정보학은 1990년대의 정보학과 2008년도의 주제전문사서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등장과 도입에 따라 전공명칭과 교과과정 그리고 연구동향 등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같이 기록관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등장은 문헌정보학과와의 교과목 개설에도 변화를 주었고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와 범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영역, 시기별 연구동향, 연구의 지적 구조분석, 시계열적 연구, 인용분석, 주제분야별 연구, 커리큘럼과 전문가자격문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일부 논문에서는 연구자별 분포와 공저 네트워크 및 저자 프로파일링 분석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문헌정보학과 또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록관리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조

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교육은 문헌정보학과 역사학 및 행정학 등의 연계 전공 형식으로 대학원에 개설되거나 기록관리학과로 개설되고 있으며, 연구 역시 초기의 연구에서 주제가 전문화되면서 교수와 연구원, 기록관리학 교수와 타 학과 교수의 연구 등이 증가하고 있다(배수라, 2013, p. 78).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기록관리학 분야는 하나의 영역으로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교수들에 의하여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전문가를 교육 및 양성하는 주요 학문영역의 하나로서 문헌정보학과와의 기록관리 관련 교과목과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의 출판동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는 주요 학문분야의 하나로서 문헌정보학과와 연구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문헌정보학과와의 기록관리학 교과목과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출판동향 조사를 위하여 Excel 2014 버전을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헌정보학과와의 기록관리 교과목의 변화와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출판동향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정보학과와의 기록관리 교과목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범위 및 일부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범위는 전국 35개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와의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최근에 설립된 경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의 경우 2014년에만 포함되었다.

둘째, 조사 시기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로 1997년, 2004년, 2011년, 2014년의 4차례에 걸쳐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7년 단위로 조사하였으나 2011년 이후 4년 단위로 조사하였으며, 일부 조사가 되지 않은 연도의 경우 해당 자료의 부재로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셋째, 교과목의 영역은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직학, 정보조사제공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어학으로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 관련 교과목 개설과 변화 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하였다. 다만 문헌정보학과 설립년의 차이로 2005년부터 2009년은 29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2011년부터 2014년은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출판동향 변화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범위 및 일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저자는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7개 학술지의 저자 중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을 게재한 저자이다. 기본적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자인 교수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 학문분야 전공자 중 현재 문헌정보학과 교수인 저자도 포함하였다. 즉, 2015년 현재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회원으로 4년제 문헌정보학과 소속 교수와 타 소속 교수 중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및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포함하여 총 181명 중 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문헌정보학 교수라 칭하기로 한다.

둘째, 저자의 전공영역은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직학, 정보조사제공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저자의 세부 전공에 대한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정보와 RISS의 학위논문 등을 기반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조사대상 학술지는 총 7개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의 5개 학술지와 기록관리학 분야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의 2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

넷째, 조사 기간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창간된 200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로 약 15년이다. 일부 연도별 양상을 분석해야 하는 논문수와 논문 비율 그리고 각 학술지별 저자의 단독 및 공저 비율의 경우 2015년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섯째, 전체 논문수는 단독연구와 공동연구를 구분하지 않고 수치적으로 조사하였다. 다만 학술지 및 저자별 계량적 분석을 위하여 단독논문의 경우 '1', 공동연구의 경우 저자역할은 고려하지 않고 1/n로 계산하였다.

2.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과목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표준교과목 개발, 신규교과목 개설추이, 전문영역의 교육과정 개발, 국내외 해외 교육과정의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기록관리학 분야의 교과목 관련 선행연구로 정연경(2003, 2005, 2010)은 미국의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와 한국과 미국의 대학원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비교 및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관련 선행연구로서 Cox(1987)와 Gilliland-Swetland(1992) 및 Couture & Ducharme(2005)에 의한 기록관리학의 연구영역 또는 시기별 연구동향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반면, 국내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선행연구의 경우 다양한 방면으로 수행되어 왔다. 기록관리학 논문으로는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2007)과 김희정(2006)의 지적구조 분석과 시계열적 분석, 정연경(2011)의 원문헌과 피인용문헌 비교 분석, 김규환 등(2009)의 제목의 구문 및 의미구조를 기반으로 핵심 연구대상과 연구도메인 및 관심 연구초점 분석 등이 있다. 또한 기록관리학의 주제분야별 국내 연구동향 연구로 장로사, 김유승(2009)은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 중심의 정보학 영역을 분석하였다. 그 외 이소연(2011)의 전자기록 논문의 세부 주제영역별 내용 분석, 최재희(2011)의 기록물 평가론 관련 논문의 정량적 분석과 내용적 분석, 설문원(2012)의 기록분류 관련 논문의 분야별 내용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편 기록관리학 연구자 또는 저자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 것으로 남태우, 이진영(2009)은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의 논문을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하였고, 이수상(2010)은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논문들의 공저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김관준, 서혜란(2012)은 국내 전자기록 분야 161편의 논문에 대하여 디스크립터 프로파일링과 저자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지적구조를 분석하였으며, 배수라(2013)

는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커리큘럼과 전문 자격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살피고 기록관리학의 3개 학술지와 문헌정보학의 5개 학술지를 선정하여 두 학술지 간의 인용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국외의 연구는 연구영역 또는 시기별 연구동향 연구와 기록학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의 경우 연구의 지적구조, 논문 영역 분석, 참고문헌 피인용문헌 분석, 제목의 구문 및 의미구조 기반 분석 외에 주제분야별로 기록분류, 국내 전자기록 연구, 기록물 평가론 및 정보학영역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별 연구가 주로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자에 관한 분석 또한 내용의 일부로 이루어져 왔으며,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을 분리하여 교과목의 차이와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의 한 영역으로 기록관리학 분야 교과목의 개설과 변화, 그리고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기록관리 분야 연구동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진행하고 기록관리 분야 교과목과 연구동향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 교과목 변화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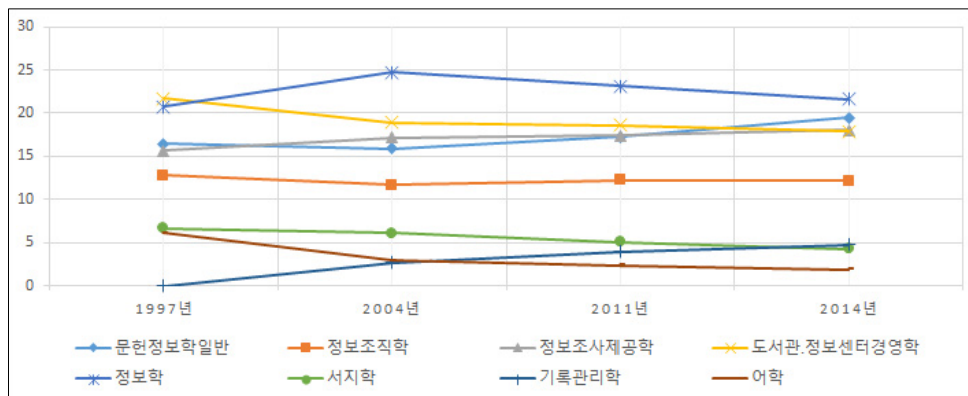
기록관리학 분야 교과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4년제 대학 35개 문헌정보학과와 교과과정의 영역구분과 개설 변화를 조사하고 기록관리학 분야 교과목의 개설과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록관리

〈표 1〉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영역별 분포변화 비교

연도	구분	문헌정보학 일반	정보 조직학	정보 조사 제공학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 관리학	어학	총
1997년도	개설과목 수	171	133	162	225	215	69	0	63	1,038
	분포비율(%)	16.47	12.81	15.61	21.68	20.71	6.65	0.00	6.07	100.00
2004년도	개설과목 수	158	116	171	188	246	61	27	29	996
	분포비율(%)	15.86	11.65	17.17	18.88	24.70	6.12	2.71	2.91	100.00
2011년도	개설과목 수	200	142	201	215	268	59	46	27	1,158
	분포비율(%)	17.27	12.26	17.36	18.57	23.14	5.09	3.97	2.33	100.00
2014년도	개설과목 수	233	145	216	214	259	51	57	22	1,197
	분포비율(%)	19.47	12.11	18.05	17.88	21.64	4.26	4.76	1.84	100.00

출처: 노영희, 나경식, 2015, p. 39.



〈그림 1〉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영역별 분포변화

학은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 0%에서 2004년에 2.71%로, 2011년에는 3.97%로, 2014년에는 4.76%로 증가하고 있다. 즉 기록관리학 교과목은 1999년에 대학원에 개설된 이래 문헌정보학과의 교과목으로 개설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과정 영역별 개설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1997년에는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정보학, 문헌정보일반, 정보조사제공학, 정보조직학, 서지학, 어학 순이었다. 2004년에는 정보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정보조사제공학, 문헌

정보학일반, 정보조직학, 서지학, 어학, 기록관리학 순으로 나타나, 1997년에 전체과목에서 차지하는 개설비율이 가장 높았던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이 정보학 다음 순위가 되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정보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정보조사제공학,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직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어학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록관리학과 어학의 순위가 바뀐 것이 특징적이다. 2014년에는 정보학,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사제공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정보조직학, 기록관리학, 서지학, 어학 순으로 나타나, 문헌

정보학일반이 전체과목에서 차지하는 개설비율이 높아지면서 정보학 다음으로 많이 개설되었으며, 정보조사제공학이 그 뒤를 이었다.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학은 전체 교과목 중의 개설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8개 교과목 중 1997년에는 개설되지 않았으나 1999년 개설 이래 2004년에는 8번째, 2011년에는 7번째, 2014년에는 6번째로 개설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대학별 기록관리 교과목의 개설과 변화

기록관리학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국내 9개 대학

에 대학원 중심제로 역사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행정학과의 연계전공 형식으로 개설되거나 기록관리학과로 개설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교과 영역이다. 이후 문헌정보학과 학부에도 기록관리학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표 2〉와 같이 기록관리학 분야의 최근 10년간 새로이 개설된 교과목 현황 조사 결과 2004년에는 17개교에서 27개 과목을, 2011년에는 27개교에서 46개 과목을, 그리고 2014년에는 28개교에서 57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학 교과목을 개설하는 대학교와 기록관리학 교과목의 개설수는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목 개설수의 증가 폭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표 2〉 전국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기록관리 교과목 현황

전공영역 개설대학교명	1997	2004	2011	2014
강남대학교	0	1	1	1
건국대학교	0	1	1	1
경기대학교	0	0	1	1
경북대학교	0	1	2	4
경성대학교	0	0	1	1
경일대학교				1
계명대학교	0	1	0	0
공주대학교	0	0	0	1
광주대학교	0	0	1	2
나사렛대학교			0	0
대구가톨릭대학교	0	1	2	3
대구대학교	0	1	2	3
대진대학교	0	0	0	0
덕성여자대학교	0	0	1	1
동덕여자대학교	0	0	1	1
동의대학교	0	0	2	1
명지대학교	0	0	0	0
부산대학교	0	1	2	2
상명대학교	0	0	0	1

전공영역 개설대학교명	1997	2004	2011	2014
서울여자대학교	0	1	1	1
성균관대학교	0	0	2	0
숙명여자대학교	0	1	1	2
신라대학교	0	1	1	1
연세대학교	0	1	1	1
이화여자대학교	0	3	3	3
인천대학교			2	3
전남대학교	0	1	2	3
전북대학교	0	0	1	1
전주대학교	0	0	1	1
중부대학교	0	0	0	0
중앙대학교	0	1	1	2
청주대학교	0	1	1	0
충남대학교	0	2	5	6
한남대학교	0	0	1	1
한성대학교	0	8	6	8
총 학교 및 과목 수	0	17개교 / 27과목	27개교 / 16과목	28개교 / 57과목

3.2 기록관리 교과목 개설의 분석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기록관리 교과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으며 이를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에는 20개교에 33과목, 2007년에는 25개교에 42과목, 2009년에는 26개교에 44과목, 2011년에는 27개교에 45과목, 2014년에는 28개교에 57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설과목 증가비율은 2007년에는 2005년에 비해 27.27%, 2009년에는 2007년에 비해 4.76%, 2011년에는 2009년에 비해 2.27%, 2014년에는 2011년에 비해 2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학교 비율은 2007년에는 2005년에 비해 25.00%, 2009년에는 비해 2007년에 4.00%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2009년에 비해 3.85% 증

가, 2014년에는 2011년에 비해 3.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도별 개설현황과 교과과목 수를 살펴 보면 우선 2005년의 경우 경기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주대학교가 새로 이 분야 과목을 개설하였다. 또한 과목 수에 있어서 대부분의 대학이 1과목씩 개설하고 있으며, 2과목 이상 개설한 학교는 경북대학교(2과목), 부산대학교(2과목), 이화여자대학교(3과목), 충남대학교(2과목), 그리고 한성대학교(9과목)이다. 2007년에는 공주대학교, 광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의대학교, 전북대학교가 각각 1과목씩 추가로 기록관리학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총 25개교가 기록관리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은 2007년과 유사하며, 2011년에는 인천대학교에 신규로 2과목이 개설

〈표 3〉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기록관리 교과목명

대학교명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4년	
	과목명	수	과목명	수	과목명	수	과목명	수	과목명	수
강남대학교	기록관리학	1	기록관리학	1	기록관리학	1	기록관리학	1	기록관리론	1
건국대학교	기록관리및정부자료	1	기록관리학개론	1	기록관리학개론	1	기록관리학개론	1	기록관리학개론	1
경기대학교	기록보존학	1	기록보존학	1	기록관리론	1	기록관리론	1	기록관리론	1
경북대학교	기록관리론 기록관리제도론	2	기록관리론 기록관리제도론	2	기록과인간 기록관리제도론	2	기록과인간 기록관리제도론	2	기록과인간 기록관리제도론 전통기록물 아카이브 구축론 전통기록물과 문화콘텐츠	4
경성대학교					기록관리학	1	기록관리학	1	기록관리학개론	1
경일대학교									기록관리론	1
계명대학교	정부간행물	1	정부간행물	1	정부간행물	1				
공주대학교			기록관리학	1					기록관리학	1
광주대학교					기록관리학	1	기록관리론	1	기록관리론 정보자료보존론	2
나사렛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부간행물과 기록관리	1	정부간행물과 기록관리	1	정부간행물과 기록관리	1	정부간행물과 기록관리	1	기록의이해 보존기록론 기록관리론	3
대구대학교	기록보존론	1	기록보존론 문서자료	2	기록보존론 문서자료	2	기록보존론 문서자료	2	기록보존론 문서자료 디지털보존	3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기록관리	1	기록관리	1	기록관리	1	기록관리	1	기록관리	1
동덕여자대학교			기록관리론	1	기록관리론	1	기록관리론	1	기록관리론	1
동의대학교			문서관리론	1	문서관리론	1	기록관리개론 기록관리제도론	2	기록관리개론	1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기록관리론, 정부간행물	2	기록관리론 정부간행물	2	공문서관리론 기록관리론	2	공문서관리론 기록학개론	2	공문서관리론 기록학개론	2
상명대학교									기록관리	1
서울여자대학교	정부간행물	1	정부간행물/기록관리	1	기록관리개론 기록정보실습	2	기록관리개론	1	기록관리개론	1
성균관대학교	문서관리	1	문서관리 문헌보존법	2	문서관리 문헌보존법	2	문서관리 문헌보존법	2		
숙명여자대학교	보존기록관리	1	보존기록관리	1	보존기록관리	1	기록관리학개론	1	기록관리학의이해 디지털아카이빙	2
신리대학교			기록관리의이해	1	기록관리의이해	1	기록관리의이해	1	기록관리의이해	1
연세대학교	정부자료론	1	정부자료론	1	기록관리론 정부자료론	2	기록관리론	1	기록관리론	1
이화여자대학교	기록관리학의이해 기록정보관리 정부기록물관리	3	기록관리학의이해 기록정보관리 정부기록물관리	3	기록관리학의이해 기록정보관리 정부기록물관리	3	기록관리학의이해 기록정보관리 정부기록물관리	3	기록관리학의 이해 기록정보관리 정부기록물관리	3
인천대학교							기록관리 고문헌관리	2	기록관리 고문헌관리 정보자료보존	3
전남대학교	기록물의보존관리	1	기록관리실습 기록관리학개론	2	기록관리실습 기록관리학개론	2	기록관리실습 기록관리학개론	2	기록화실습 기록관리학개론 기록평가의보존	3
전북대학교			기록정보관리	1	기록정보관리	1	기록정보관리	1	기록정보관리	1
전주대학교	기록물관리	1	기록물관리	1	기록물관리	1	기록물관리	1	기록물관리	1
충부대학교										
중앙대학교	기록보존자료관리론	1	기록관리론	1	기록관리론	1	기록관리론	1	기록관리학개론 공공기록물관리론	2
청주대학교	기록관리와정보매체	1	기록관리와정보매체	1	기록관리와정보매체	1	기록관리와정보매체	1		

대학교명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4년	
	과목명	수	과목명	수	과목명	수	과목명	수	과목명	수
충남대학교	기록보존학특강 정부간행물	2	기록의이해 기록관리제도 기록관리학특강 정부자료론	4	기록의이해 기록관리제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관리학특강 정부자료	5	기록의이해 기록관리제도 기록학특강 정부자료 정보자료보존론	5	고문헌의관리론 기록학개론 기록관리제도 기록학특강 정부자료론 정보자료보존론	6
한남대학교							기록관리론	1	기록관리론	1
한성대학교	기록관리개론 기록관리의역사 기록정보조직론 기록정보수집및평가 기록관영론 기록정보봉사론 전자기록관리론 기록보존처리론 기록관리시스템론	9	기록관리시스템론 기록관리의이해 기록관리정책과제도 기록보존론 기록정보수집및평가 기록정보조직론 특수기록물관리론 한국사료관리론	8	기록관리개론 기록관리시스템론 기록보존론 기록정보수집및평가 기록정보조직론 특수기록물관리론	6	기록관리개론 기록관리시스템론 기록보존관리론 기록정보조직론 기록정보서비스론 기록평가및선별론	6	기록관리학개론 기록보존관리론 기록및정보서비스론 기록평가 및 선별론 기록과정보 기록정보조직론 기록정보서비스론 문화자원과아카이브 전자기록관리론	8
개설학교 수	총 20개교	33	총 25개교	42	총 26개교	44	총 27개교	45	총 28개교	57

되었고 한남대학교에 1과목이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반대로 계명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각각 1과목이 폐지되었다. 한성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 기록관리학 관련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2014년에는 경일대학교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면서 신규로 1과목이 개설되었고, 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각각 2과목씩, 공주대학교, 광주대학교, 대구대학교, 상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는 각각 1과목씩 추가로 개설하였다. 반대로, 동의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각각 1과목씩, 성균관대학교, 한성대학교가 각각 2과목씩 폐지하였다.

셋째, 성균관대학교는 각각 2007년도와 2011년도 조사에 의하면 1-2과목이 개설되었으나 2014년에는 개설하고 있지 않다. 한편 청주대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기록관리학 교과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2014년에는 개설되지 않았으며, 반면, 인천대와 한남대는 원래 기록관리학 교과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가 근래 2011년에 들어 개설하였다.

4.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 출판동향 변화의 분석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출판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별, 저자별, 학술지별 및 전공별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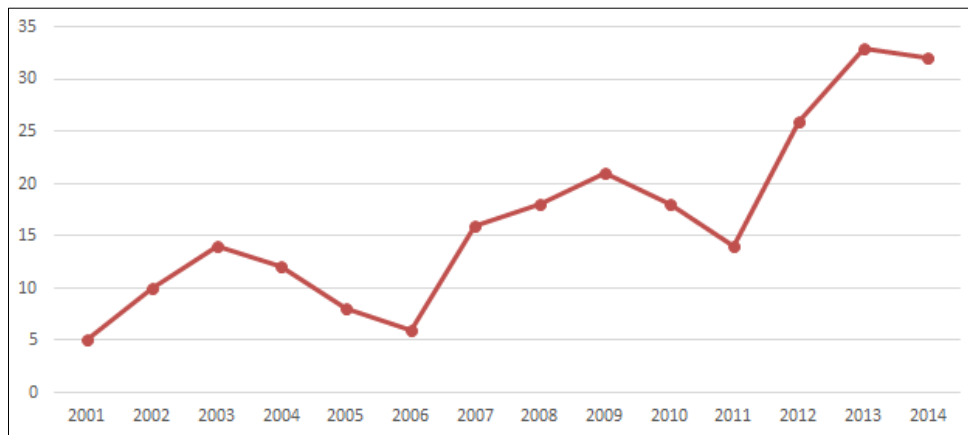
4.1 연도별 출판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창간된 2001년을 기준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의 14년 6개월간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7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4,596편이다. 그중 문헌정보학 교수가 저자인 기록관리 분야 논문은 총 251편이며, 이는 약 5.5%의 높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소속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도별 게재 논문수를 조사·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그림 2>와 같다.

<표 4>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는 7개 문헌정보학과 및 기록관리학 학술지에

〈표 4〉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의 연도별 게재수

연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서지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총
2001	2	0	1	1	0	1	0	5
2002	7	1	1	0	1	0	0	10
2003	2	0	2	4	2	4	0	14
2004	4	0	4	2	0	1	1	12
2005	5	0	0	1	0	0	2	8
2006	2	1	1	2	0	0	0	6
2007	6	1	3	1	3	2	0	16
2008	7	0	3	0	2	5	1	18
2009	9	2	4	2	1	1	2	21
2010	9	0	0	1	5	0	3	18
2011	10	0	1	0	3	0	0	14
2012	18	2	0	4	1	0	1	26
2013	18	1	5	4	1	3	1	33
2014	18	2	1	3	3	1	4	32
총	125	12	28	29	24	18	15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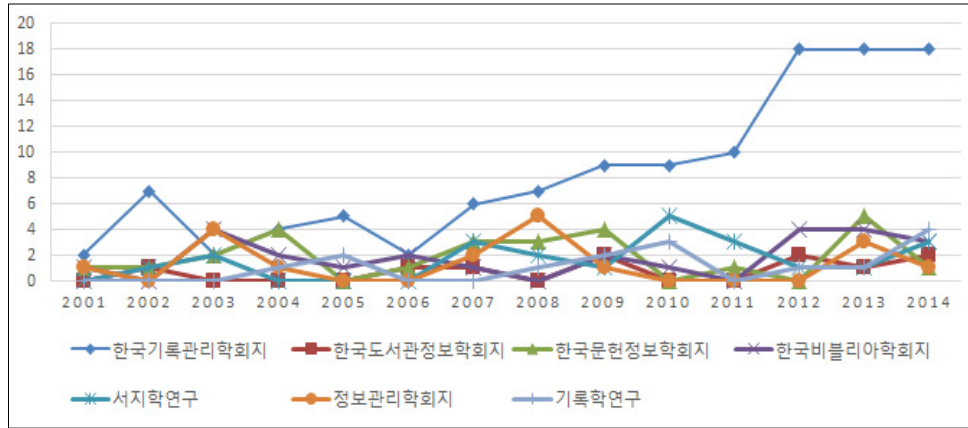


〈그림 2〉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도별 기록관리 논문수

총 5편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3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처럼 전체 7개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출판 비율은 높지 않지만 연도별 논문의 증가 현상을 통해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

록관리학 분야의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이를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7개 학술지별로 구분하고 각 연도별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수와 비율을 재정리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7개 학술지 수록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연도별 논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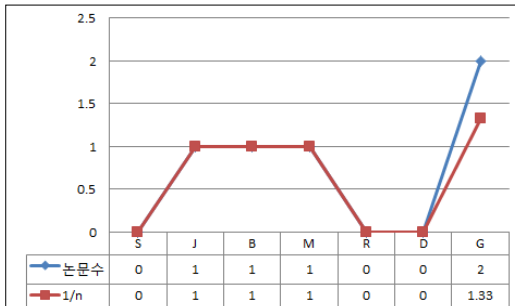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가장 많이 게재되고 있다. 그 외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서지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순으로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경우 2012년부터 두드러지게 가장 많은 기록관리 분야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의 7개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학술지의 상반기에 게재된 기록관리학 논문 총 20편 중 8편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이후에도 다른 학술지 대비 가장 많은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이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2013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33편 중 18편인 약 55%의 논문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되었다. 이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경우 다른 6개 학술지와 달리 2001년의 경우 전체 5편의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중 2편으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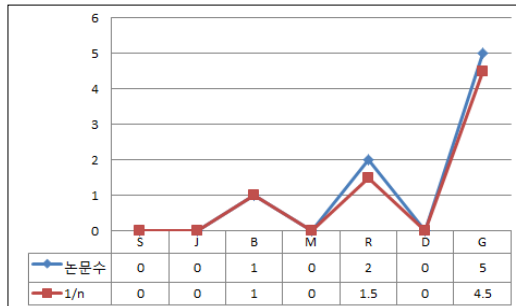
비율이 40%이었고 2008년에는 전체 18편 중 7편으로 약 39%이던 게재 상황과 비교해 보면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출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한편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7개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학술지별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수를 2001년, 2005년, 2010년 및 2014년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논문수는 단독연구와 공동연구를 모두 1편으로 하여 조사한 경우와 공동연구를 1/n으로 조사한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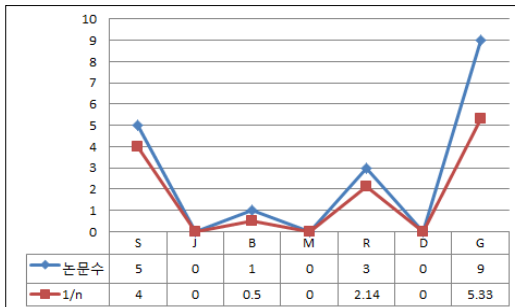
그림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단계 상의 각 학술지의 논문수를 살펴보면 단독저술과 공동 저술을 1/n로 정리하여 살펴봐도 한국기록관리학회지(G)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정보관리연구(J)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M)의 경우 간혹 1편 정도의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그림 5〉). 또한 2005년부터 공동연구의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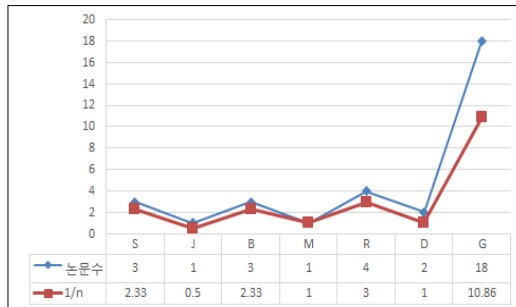
<그림 4> 2001년 학술지별 기록관리 분야 논문수



<그림 5> 2005년 학술지별 기록관리 분야 논문수



<그림 6> 2010년 학술지별 기록관리 분야 논문수



<그림 7> 2014년 학술지별 기록관리 분야 논문수

며 2014년의 경우 공동연구의 현상이 보다 더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공동연구의 논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기록관리학회지(G)와 기록학연구(R)에 게재되는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경우 공동연구가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 2개 학술지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연구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저자별 출판동향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저자별 출판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문헌정보학 세부전공별 저자수와 전체 문헌정보학 교수 대비 저자수 비율 그리고 각 문헌정보학 소고 교수의 세부전공별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4.2.1 세부 전공별 저자

문헌정보학 교수 181명 중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7개 학술지에 기록관리 분야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52명으로 약 28.7%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 저자의 세부전공 영역을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직학, 정보조사제공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정보

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의 7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전공별 저자수와 비율을 분석하면 다음 <그림 8>, <그림 9>와 같다.

첫째, 전체 문헌정보학 교수의 세부전공별 기록관리 분야 논문 저자수와 비율 중 정보학 전공 교수가 총 18명(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문헌정보학 교수 중 정보학 전공 교수의 비율이 높은 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지학 분야 전공 교수는 세부전공별 기록관리 분야 논문 저자수와 비율이 총 14명(27%)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서지학 분야 전공 교수는 전체 문헌정보학 교수 중 비율이 높지 않으나 역사기록물과 기록보존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수행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셋째, 전공 교수의 저자 수 경우 정보조직학(13%), 문헌정보학일반(10%),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8%), 정보조사제공학(4%) 순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비율은 아니나 일부 세부전공 교수들에 의하여 기록관리 분야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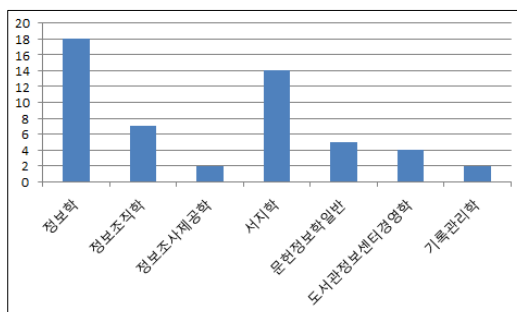
넷째, 기록관리학 전공 교수의 기록관리 논문 저술자의 수와 비율이 4% 정도로 낮은 이유는 전체 문헌정보학 교수 중 기록관리 세부전공 교수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2.2 단독과 공저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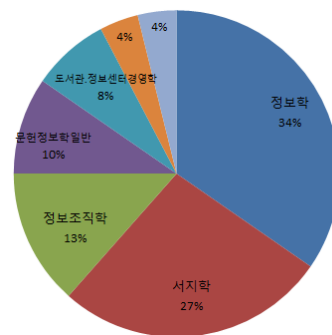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 분야 논문의 각 세부전공별 저술의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논문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첫째, 단독연구의 각 세부전공별 비율은 서지학,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직학, 정보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기록관리, 정보조사제공학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지학 전공 교수의 경우 1인의 단독연구가 두드러지며, 정보학 전공 교수의 경우 전체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저술의 문헌정보학 교수 대비 세부전공별 저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단독저술은 높지 않다.

둘째, 2인 공동연구의 각 세부전공별 논문수는 정보학, 문헌정보학일반, 서지학, 정보조직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록관리학의 경우 2인 저술의 연구는



<그림 8> 세부전공별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그림 9> 세부전공별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저자비율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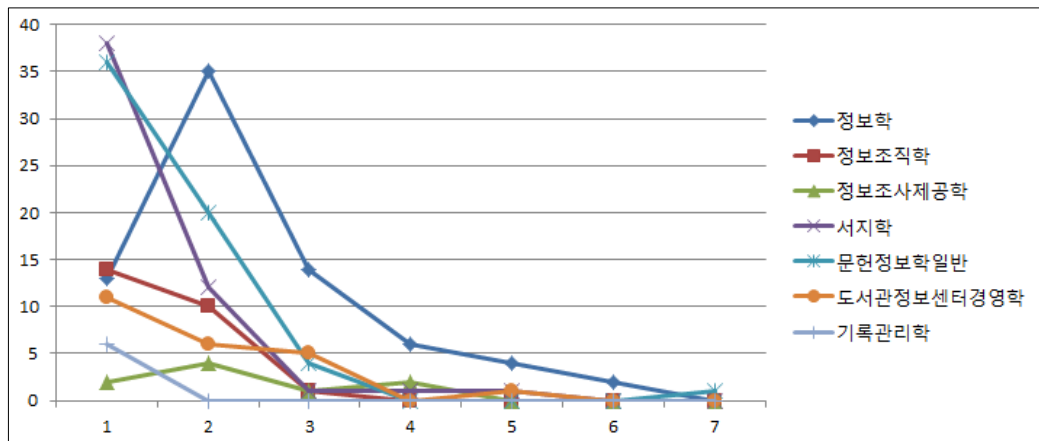
셋째, 3인 공동연구의 각 세부전공별 비율은 정보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문헌정보학 일반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록관리학의 경우에는 3인 저술의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4-7인의 다수의 연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동연구의 경우 주로 정보학 전공 연구자에 의한 경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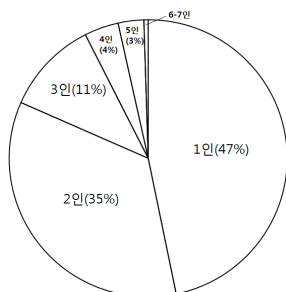
한편,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7개 학술지 전체를 대상으로 단독 및 공동연구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11>과 같이 단독연구가 가장 많아 47%이며, 2인의 공동연구의 경우 35%이다. 그 중 단독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서지학 전공 교수와 공동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정보학 전공 교수의 단독 및 공동연구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12>, <그림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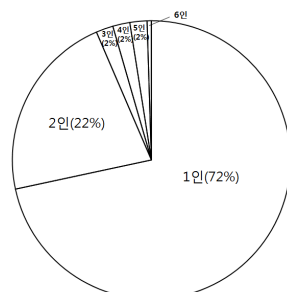
<그림 12>와 <그림 13>과 같이 서지학과 정보학 전공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지학 전공 교수의 72%는 단독연구를 하였으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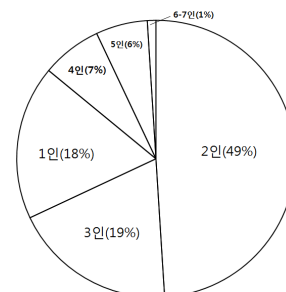
<그림 10> 세부전공별 기록관리학 분야 단독 및 공동연구 논문수



<그림 11>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 저자수 비율



<그림 12> 서지학 전공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 저자수 비율



<그림 13> 정보학 전공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 저자수 비율

보학 전공 교수의 경우 2인 연구가 49%, 3인 연구가 19%, 4-6인 연구가 14%로 분석되었다. 즉, 서지학 전공 교수는 주로 단독연구가 많은 반면 정보학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연구 동향을 나타냈다. 또한 전술의 <그림 4>~<그림 7> 등과 같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단계별 7개 학술지상의 논문 게재 현황에 의하면 한국 기록관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경우 공동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문헌정보학 교수의 세부전공별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단독과 공동연구의 비율 조사 결과, 정보학 분야는 공동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며, 서지학과 문헌정보학일반 분야의 경우 주로 1인 또는 2인에 의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록관리학 세부 전공은 단독연구 외에 공동연구의 논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4.3 학술지별 출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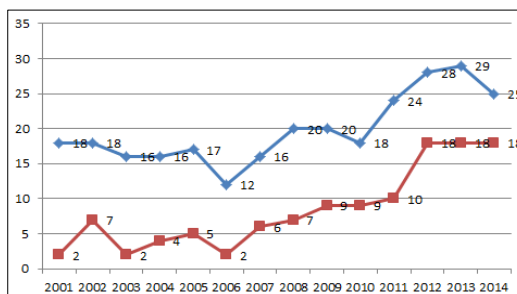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7개 학술지 전체를 대상으로 각 학술지별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출판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술의 <그림 3>과 같다. 즉, 200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의 7개 학술지별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 분야 논문 출판동향 조사 결과, 한국 기록관리학회지가 가장 많은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게재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6개 학술지의 경우 거의 비슷한 비율로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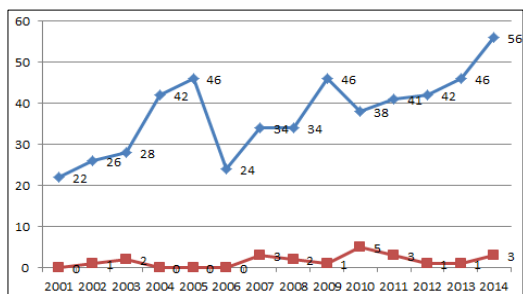
한편, 7개 각 학술지 별로 각 연도별 전체 논문수 대비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수의 비율은 <그림 14> ~ <그림 20>과 같다. 각 학술지별로 마름모꼴로 표시된 위 부분의 선이 연도별 전체 논문수이며, 네모꼴로 표시된 아래 부분의 선이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수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7개 학술지 별로 각 연도별 전체 게재 논문수 대비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수의 비율을 비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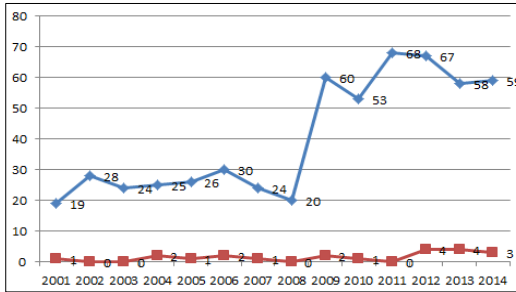
첫째, 7개 학술지 별 각 연도별로 게재된 전체 논문수 대비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수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23%이며,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경우 21%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반면 한국기록관리학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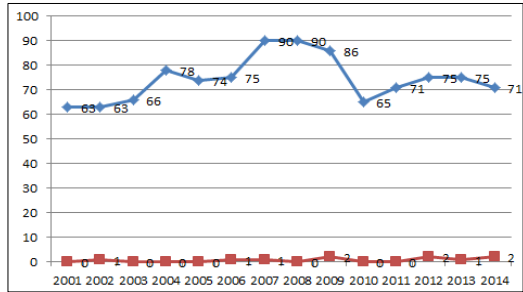
<그림 1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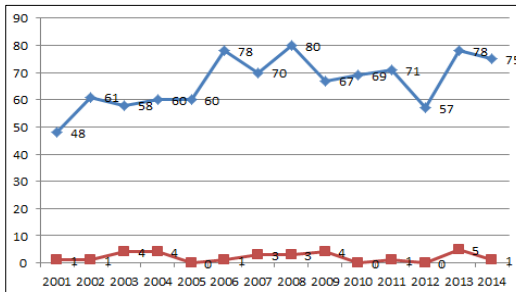
<그림 15> 서지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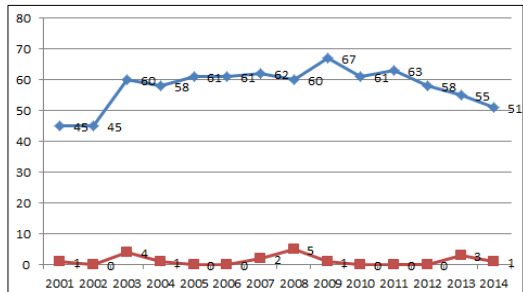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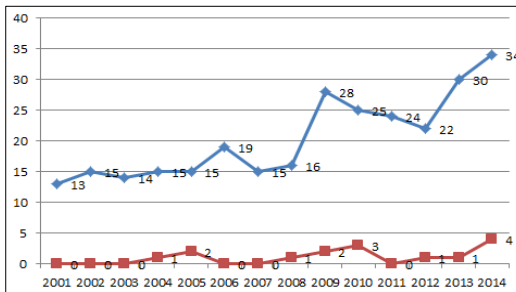
〈그림 1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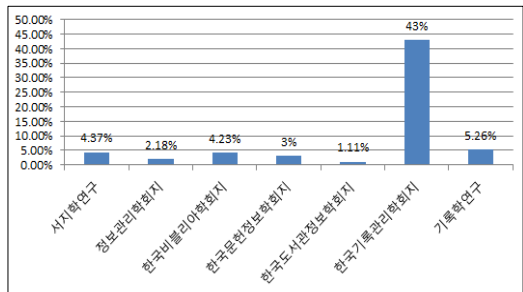
〈그림 1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그림 19〉 정보관리학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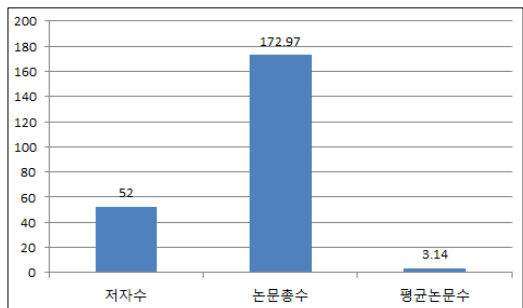
〈그림 20〉 기록학연구



〈그림 21〉 7개 학술지 중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의 비율



〈그림 22〉 세부전공별 기록관리학 논문 현황



〈그림 23〉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 현황

와 기록학연구는 6%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이는 기록관리 전문분야 학술지의 경우 문헌정보학 교수보다는 현장의 전문가와 타 전공 연구자의 논문 게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그림 21>과 같이 7개 학술지중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의 비율 조사 결과 한국 기록관리학회지가 43%로 가장 높다.

둘째, 각 연도에 따라 7개 학술지 별로 게재 된 전체 논문수 대비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술지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이다. 반면 기록학연구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일부 증가하고 있다.

셋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이외의 6개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경우 연도별 전체 게재논문의 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 게재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 2008년 이후 논문수의 증가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게재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4.4 세부전공별 출판동향

문헌정보학의 각 세부전공별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출판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부전공별 논문수 및 기록관리학 분야 저자수와 평균 논문수를 정리하면 <그림 22>, <그림 23>과 같다. 이 경우 논문의 수는 1/n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 세부전공별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출판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세부전공별 기록관리 분야 논문수 조사 결과 서지학, 문헌정

보학, 정보학, 정보조직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기록관리 및 정보조사제공학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록관리 분야 논문 중 서지학 전공자가 42.78편(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세부전공 중 정보학 전공자의 논문수가 저자수의 비율에 비해 높지 않은 이유는 실제 전술하였듯이 공동연구가 많아 실제 총 논문수는 36.72편으로 전체의 23%이다.

둘째,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세부전공별 기록관리 분야 평균 논문수를 조사한 결과, 문헌정보학 일반, 기록관리,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서지학, 정보조직학, 정보조사제공학, 정보학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각 세부분야 저자수 대비 총 논문수를 반영하였기에 5명의 적은 저자에 의해 기록관리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진 문헌정보학 일반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정보학의 경우 저자 수는 1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평균 논문 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보학 분야에서 공저 현상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세부전공별 논문수와 논문수에 따른 전공별 논문 비율에 있어 정보조사제공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교수의 기록관리 논문이 가장 적어 4.83편 또는 5편으로 각각 전체 중 3%의 비율을 보였다. 그중 기록관리 전공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수가 적은 이유는 전체 문헌정보학 교수 중 기록관리학 전공자의 비율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종합적으로 문헌정보학 교수의 세부 전공에 따른 기록관리 분야 논문의 총수와 평균 논문의 수를 조사·분석한 결과 서지학 전공 교수가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문헌정보학 일

반 분야 교수가 저자수 대비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논의

이상으로 전국 4년제 대학 35개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개설 변화 및 문헌정보학과의 기록관리 교과목 개설 변화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7개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의 출판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우선 기록관리 교과목 변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교과목 대비 기록관리학 교과목의 개설 변화 조사 결과,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문헌정보일반, 정보학, 정보조사제공학, 정보조직학, 어학, 서지학 분야가 일부 증가 개설되는 면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개설비율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기록관리학 분야의 교과목은 1999년 처음으로 개설된 이래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둘째, 연도별 기록관리학 교과목의 개설변화를 조사한 결과, 1997년까지 한 과목도 개설되지 않았던 기록관리학 분야는 2004년까지 27개 과목이 새로 개설되었으며 이후 2011년까지 총 162개 과목이 새로 개설되어 16.27%가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11개 과목이 새로 개설되어 23.91%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문헌정보학과 설치 대비 기록관리학 교과목의 개설 비율을 조사 결과, 전국 문헌정보학과 수가 32개이던 2005년에는 기록관리학 교과목 개설비율이 62.50%, 2007년에는 78.1%,

2009년에는 8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에 2개교에 새로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고 2011년에는 1개 과목이 증감하였으며 기록관리학 과목이 전체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비율은 79.41%로 감소하였다. 2014년도에 1개교가 추가되고 기록관리학 과목이 전체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비율은 80.0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2014년 현재 전국 4년제 35개 문헌정보학과 중 80%의 학과에 기록관리학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전체 문헌정보학 교과목 중 기록관리학 교과목의 개설 비율을 조사한 결과, 기록관리학 교과목이 전체 문헌정보학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 0%에서 2004년에 2.71%로, 2011년에는 3.97%로, 2014년에는 5.76%로 1999년에 개설되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과 소속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출판동향 변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기록관리학 논문의 변화 조사 결과, 2001년의 경우 문헌정보학과 및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 7개에 총 5편의 논문이 게재된 이래 2013년에는 33편의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일부 다소 감소세가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즉, 2015년 상반기까지 전체 7개 학술지에 실린 논문 4,596편 중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은 251편으로 약 5.5%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연도별 논문의 증가 양상을 통해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 교수의 학술지별 기록관리학 논문의 게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 논문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가장 많은 게재하고 있으며, 그 외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서지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순으로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경우 다른 6개 학술지와 달리 2001년 전체 5편의 논문 중 2편으로 40%에서 2008년에는 전체 18편 중 7편으로 약 39%, 2013년의 경우 총 33편 중 18편인 약 55%의 문헌정보학 교수의 논문이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게재되었다. 이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의 전문분야 학술지에 게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체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의 각 세부전공별 저자의 비율 조사 결과, 세부전공별 저자는 정보학(35%), 서지학(27%), 정보조직학(14%), 문헌정보학일반(10%),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정보조사제공학, 기록관리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전체 기록관리학 논문 저술의 문헌정보학 교수 대비 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이유는 전체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세부전공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지학의 경우 전공 교수의 비율이 낮으나 기록관리학 논문 비율이 높은 것은 관련 연구 영역의 다양한 연구의 수행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넷째,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저술의 단독 및 공동연구의 동향 조사 결과, 단독연구가 47%로 가장 많으며, 2인 연구의 경

우 35%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연구의 각 세부전공별 비율은 서지학,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직학, 정보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기록관리, 정보조사제공학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지학 전공자의 경우 1인 단독연구가 두드러지며, 정보학의 경우 전체 세부전공별 저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4~7인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자에 의한 공동연구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 논문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7개 학술지의 연도별 전체 게재 논문수 대비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수의 비율 조사 결과, 각 연도별로 게재된 전체 논문수 대비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논문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술지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이다. 이외의 6개 학술지의 경우 연도별 전체 게재논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기록관리학 교수의 논문 게재수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문헌정보학 교수의 세부전공별 논문수와 평균 논문수 및 논문 비율 조사 결과,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세부전공별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수와 비율은 서지학, 문헌정보학, 정보학, 정보조직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기록관리 및 정보조사제공학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평균 논문수의 경우 문헌정보학 일반, 기록관리,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서지학, 정보조직학, 정보조사제공학, 정보학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하여 저자수는 정보학 분야가 가장 많고 논문수는 서지학 분야가 가장 많으며, 평균 논문수의 경우 문헌정보학 일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기록관

리학 교과목과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 출판동향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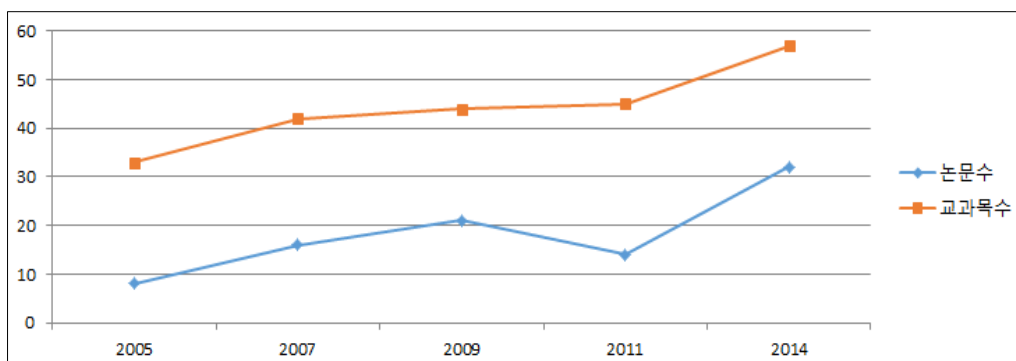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과정 8개 영역 중 기록관리학은 현재 35개 4년제 문헌정보학과 중 80%에 개설되어 있으며, 전체 과목 중 기록관리학의 개설 비율 또한 계속 증가하여 현재 5.6%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개설 기록관리 분야 교과목의 변화와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출판동향의 연계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5회에 걸쳐 교과목수와 기록관리 분야 연구논문 수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35개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기록관리 교과목수와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7개 학술지의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수는 2011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계량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부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되어 오던 기록관리학 분야는 2001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창간 이래 시간이 갈수록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분산적으로 문헌정보학과 기록

관리학의 7개 학술지에 게재되는 현상은 여전 하지만 근래들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게재율이 상승하고 있어 전문 학문분야 학술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던 해에 기록관리 교과목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문헌정보학과에 기록관리 분야 교과목이 증설되고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게재수도 계량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문헌정보학 교수의 세부전공별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저지수 분석결과 정보학 전공 교수가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수로 분석한 결과 서지학 전공 교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일부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되다가 현재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7개 모든 문헌정보학 세부전공분야의 교수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는 주로 단독연구가



<그림 24> 문헌정보학과의 기록관리 교과목수와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수의 변화

많았으나 현재에는 공동연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공동연구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록관리학이 학제성이 강한 학문분야이며, 융합적 연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각 대학의 기록관리 분야 교과목의 개설 현황이 증가 추세에 있고,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하나로 세부전공 분야에서 대부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학문분야, 교과목 개설의 증가, 학회의 창설과 학술지의 창간,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학문의 학제적 성격 등은 기록관리학 분야 발전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기록관리학 분야는 문헌정보학 8개 교과영역 중 가장 후발주자로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부 대학(대학원)에 연계전공으로 또는 독립학과로 설치되면서 교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기록관리 분야의 연구 또한 일부 연구자에 의하여 기록보존 측면으로 간헐적으로 연구되다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우선 문헌정보학과의 기록관리 분야 교과목 변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35개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를 대상으로 기록관리학분야의 교과목 개설과 변화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출판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7개 학술지에 게재된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 논문을 연도별, 저자

별, 학술지별 및 전공별로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 영역의 하나로서 기록관리학 분야의 경우 새로운 학문분야, 교과목 개설의 증가, 학회의 창설과 학술지의 창간,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학문의 학제적 성격 등이 해당 학문분야 관련 연구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헌정보학의 7개 세부전공 분야에서도 대부분 기록관리학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정보학의 한 영역으로서 기록관리학 교과목의 개설 변화 비율과 문헌정보학 교수의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의 증가 비율은 다양한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계량적으로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은 기본적으로 학제성을 가지며 사회변화와 정보환경에 민감한 학문으로 새로운 학문분야의 출현은 교과목의 개설과 변화에 반영되며, 더불어 연구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지속적인 기록관리 분야의 실무와 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한 문헌정보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학 관련 교과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경우 일정 교육 후 공인된 자격시험을 거쳐 기록전문가로 양성되고 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일정의 교육이 주도적으로 선행되어지도록 다양한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교육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록관리학 외에 정보학, 서지학, 정보조직학, 문헌정보학일반,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정보조사제공학 등의 세부전공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근래 들어 문헌정보학 교

수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공동연구 현상의 증가, 세부전공별 연구영역의 확장 등과 같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문헌정보학 각 세부전공분야를 기본으로 하되 기록관리학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를 통한 영역의 융합 및 확장과 같은 적극적 전개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모두 체계적인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무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 학문분야로서 현직자 또는 실무자와 융합적 연구 또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록관리학 분야는 문헌정보학 외에 역

사학과 행정학 등의 학제적 학문영역으로 교육 및 연구되고 있으므로 각 학문영역별 기록관리학 관련 교육과 연구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이루어진 문헌정보학 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학의 교과목 개설 변화와 연구동향 변화 분석은 계량적으로 조사·분석된 기초적인 연구이나 이는 타 학문영역의 기록관리학 분야 교육과 연구의 변화추세와 학술적 성과 등을 측정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논문제목의 구문 및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417-439.
- 김명옥 (1997). 문헌정보학의 교육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2), 121-138.
- 김성수 (1998).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40-80.
- 김판준, 서혜란 (2012).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전자기록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29-50.
- 김희정 (2006).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25.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 노영희, 나경식 (2015). 2014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서울: 조은글터.
- 배수라 (2013).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물관리학과전공.
-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 윤은하 (2011).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7-94.

-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31.
- 이수상 (2010). 공저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97-315.
-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학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87-100.
- 정연경 (2003). 미국의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34-51.
- 정연경 (2005). 한국과 미국의 대학원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5-25.
- 정연경 (2010).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99-118.
- 정연경 (2011).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2001년-2010년)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367-391.
- 정연경 (2012).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에 나타난 학제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7-27.
- 최재희 (2011). 국내외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7-2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Couture, C. & Ducharme, D. (2005).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A Status Report. Archivaria, 59, 41-67.
- Cox, R. J. (1987). American Archival Literature: Expanding Horizons and Continuing Needs, 1901-1987. American Archivist, 50(1), 306-323.
- Gilliland-Swetland, A. J. (1992). Archivy and the Computer: A Citation Analysis of North American Archival Periodical Literature. Archival Issues, 17(2), 95-11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Soo-ra (2013). Comparativ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Chungang Graduate School, Archive Management Major.
- Chang, Ro-Sa & Kim, You-Seung (200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 Korea: Focused on the Information Science. Journal

- of the Korea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87-100.
- Choi, Jae Hee (2011). Research Trends in Archival Appraisal Science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7-22.
- Chung, Yeon-Kyoung (2003). A study of archival body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3(2), 34-51.
- Chung, Yeon-Kyoung (2005). A Comparative Study of Graduate Level Archival Curriculum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2), 5-25.
- Chung, Yeon-Kyoung (2010).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a New Direction for Archiv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1), 99-118.
- Chung, Yeon-Kyoung (2011). A Reference Study o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during the Period of 2001-20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2), 367-391.
- Chung, Yeon-Kyoung (2012). A Study of Interdisciplinarity i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7-27.
- Kim, Gyu-Hwan & Nam, Yong-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217-239.
- Kim, Gyu-Hwan, Jeng, Bo-Seong, & Yi, Hyun-Jung (2009).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Ba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Article T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417-439.
- Kim, Hee-Jung (2006). A Study on the Serial Analysis and Expansion of Research Areas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5-25.
- Kim, Myung-Ok (1997). The Education Direction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2), 121-138.
- Kim, Pan Jun & Suh, Hye-Ran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of Electronic Records Research in Korea Using Profi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29-50.
- Kim, Sung-soo (1998). A Study on the Purpose and Curriculum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Summer Symposium, 40-80.
-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1989). Library Science and Curriculum Development Study. Seoul: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Lee, Jae-Yun, Moon, Ju-Yong, & Kim, Hee-Jung (2007).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al Science in Korea with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45-372.
- Lee, So-Yeon (2011).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7-31.
- Lee, Soo-Sang (2010). A Preliminary Study on the Co-author Network Analysis of Korea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Commun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297-315.
- Nam, Tea-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 Noh, Younghee & Na, Kyoungsik (2015). 2014 Korean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Curriculum. Seoul: Jeoeungeulteo.
- Seol, Moon-Won (2012).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203-232.
- Youn, Eunha (2011). Archival Studies in North America: Current Developments and Tren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77-94.

